

해외석유정보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 홈페이지(www.oil.or.kr)에서 연재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

日, 2004년도 석유수요
1.4% 감소 전망

- 日에너지경제연구소 2004년 단기수급전망 발표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는 단기에너지 수급전망을 통해 2003년도의 연료유 소비는 전년대비 0.3%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도 실적을 웃돌아 2년연속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으나, 2004년도는 1.4% 감소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3년도의 연료유 소비가 2년 연속으로 전년도 실적을 웃도는 가장 큰 원인은 원자력발전소의 장기가동 정지에 따라 발전용 B-C유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발전용 B-C유는 상반기에 2배가 증가하고 하반기에 6.5% 감소하였지만 연간으로는 25.2% 라는 두 자리수 증가를 보였다.

이외의 유종으로는 휘발유와 B-A유가 소폭 증가하였고 경유는 3.7% 감소하였으며 등유는 지난해 흑한의 영향으로 급증한 수요로 인해 올해는 1.5% 감소하였다.

2004년도에는 올해의 따뜻한 겨울 영향으로 수요가 저조한 등유가 2.6%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B-A유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휘발유는 1.1% 소폭 증가, 경유는 2.8%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용 B-C유는 41.6%라는 큰 폭의 감소를 전망해 연료유 전체가 감소하는 큰 요인으로 되었다.

원유 CIF(운임, 보험료 포함 도착가격)은 2003년도에는 하반기에 배럴당 28.0달러, 연평균 28.3달러로 전년대비 1달러 상승으로 잠정 집계되었고, 2004년도에는 배럴당 배럴당 3달러 하락한 25.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차에너지의 국내공급은 2003년 하반기에 0.2% 증가, 연간으로는 0.2%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 되었고, 석유 의존도는 발전용 유류소비의 증가로 인해 50.1%가 되어 전년도보다 0.6%p 증가해 50%대를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2004년에는 1차에너지 공급이 1.2% 증가하고 석유의존도는 발전용 유류의 소비감소로 인해 48.1%가 되어 2%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제품(연료유)내수 전망(기준케이스)

(단위 : 천t)

	2001년도	2002년도(실적)			2003년도(잠정)			2004년도
	(실적)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망
휘발유	58,817 (0.8)	30,544 (1.8)	29,375 (2.0)	59,918 (1.9)	30,485 (-0.2)	29,678 (1.0)	60,164 (0.4)	60,813 (1.1)
나프타	46,032 (-3.5)	23,054 (3.8)	25,530 (7.2)	48,585 (5.5)	22,550 (-2.2)	25,801 (1.1)	48,352 (-0.5)	48,720 (0.8)
제트연료	4,998 (8.5)	2,316 (-5.3)	2,290 (-10.3)	4,605 (-7.9)	2,167 (-6.4)	2,356 (2.9)	4,522 (-1.8)	4,627 (2.3)
등유	28,506 (-4.7)	7,474 (-1.6)	23,152 (10.7)	30,626 (7.4)	7,730 (3.4)	22,427 (-3.1)	30,157 (-1.5)	30,953 (2.6)
경유	40,925 (-2.0)	19,665 (-3.4)	19,833 (-3.5)	39,498 (-3.5)	18,782 (-4.5)	19,236 (-3.0)	38,018 (-3.7)	36,948 (-2.8)
B-A유	29,302 (-0.7)	13,018 (1.1)	17,119 (4.2)	30,136 (2.8)	13,144 (1.0)	17,009 (-0.6)	30,152 (0.1)	30,532 (1.3)
B-B유	27,613	12,038	17,480	29,518	15,031	17,183	32,214	27,467
B-C유	(-12.0)	(-16.4)	(32.2)	(6.9)	(24.9)	(-1.7)	(9.1)	(-14.7)
발전용 B-C유	8,686 (-25.4)	3,151 (-39.2)	7,693 (119.4)	10,844 (24.8)	6,376 (102.3)	7,196 (-6.5)	13,572 (25.2)	7,928 (-41.6)
연료유 판매계	236,192 (-2.9)	108,108 (-1.6)	134,778 (6.7)	242,887 (2.8)	109,889 (1.6)	133,690 (-0.8)	243,579 (0.3)	240,060 (-1.4)

주) 1.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출처 :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통계월보」 등, 전망은 (재)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연료유지신문 2003.12.24)

2003년말, 엑슨모빌은 일본 전역에서 10,055개의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거래처인 세븐일레븐과 동일 부지내에 있는 편의점과 셀프주유소 복합점포의 공동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편의점과의 업무제휴는 신니폰세유(新日本石油), 이데미쓰 코산(出光興産) 등이 로손, 쓰리에프 등과 제휴하고 있지만 운영을 위탁한 주유소와 편의점의 일체운영형은 엑슨모빌이 처음이다. 편의점보다 시설규모가 크고 고객유인효과가 높은 쇼핑센터의 병설은 미쯔비시(三菱)상사, 미쯔비시(三菱)상사석유, 마루베니(丸紅)에너지 등의 상사계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엑슨모빌과 세븐일레븐의 제휴는 주유소의 운영위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보다 한 발 더 앞서 나아간 것이 특징이다. 자유화의 상징이기도 한 타업종과의 제휴는 석유제품의 공급과 유통의 다양화, 소비자 니즈(needs)로의 대응 등에서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급과잉 일상화

타업종이 적극적으로 주유소분야로 뛰어들고 업체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올해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자유화 이후 과잉정제설비 때문에 제품공급과잉이 일상화 돼 시간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비계열품이 소규모 판매업자까지 침투되고 있고 지금까지 음지에 있었던 시간 거래제품이 「현물시장」이라는 무대에서 가격지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계열 시장의 확대가 다른 업종의 참가를 촉진하는 면도 있다. 홈센터(HC)¹⁾ 용의 등유를 비롯하여 슈퍼센터(SC)²⁾ 용의 휘발유, 경유 등도 시중에서 조달한 비계열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PB(자체 상표) 마크를 내건 주유소는 시중에서 제품을 조달한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라도

주1) 주로 일용잡화와 주택설비에 관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형태임.

주2) 식료품, 의약품, 일용품, 의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완구 등을 셀프서비스와 같은 회계로 저가격, 단시간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 소매업체임.

日, 주유소와 편의점과의 업무제휴 확산추세

PB마크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원매사는 원유정제를 특화시키고 판매는 중개인(저유소를 보유한 특약점)과 SC, HC에 맡기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원매사가 사업영역을 큰 폭으로 줄이는 것도 예상되고 있다.

공급 다양화는 소매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하이퍼'로 불리는 대형상업시설에 병설되는 주유소의 판매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판매업자가 모습을 감췄다. 석유제품의 유통에서 소매까지 일본과 유럽의 형태는 다르지만 최근 수년간의 동향은 유럽에 휘둘러 왔다는 지적도 있다. 공급 다양화가 한층 진행된다면 타업종과의 제휴노력도 더욱 활발하게 되고 기존 업자는 밀려날 수도 있다.

고객 유인효과에 관심이 높은 HC

과거 다양한 제휴가 이루어져 왔으나 주유소에 널리 보급된 사례는 거의 없는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HC(홈센터)의 등유판매이다. 타업종 제휴라는 정의를 놓고 볼때는 약간 다르겠지만 공급상 장점 때문에 성공한 부류에 든다. 점포 1곳당 판매량이 많고 수송비용도 아주 낮다. 가격은 일정한 지표에 기초를 두고 매월 결제가 이루어지며, 사후 조정은 없고 현금지불이 원칙이다. 결산가격은 다소 싸다고 해도 수송비용 등 경비가 들지않아 공급측에 큰 장점이 발생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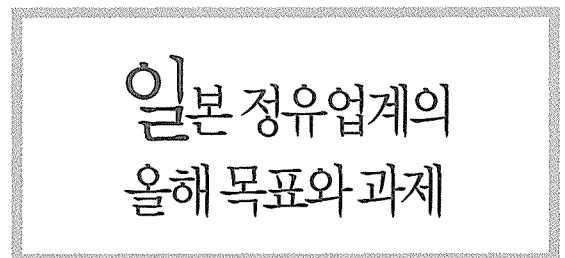
지금은 등유판매소를 병설한 HC는 약 6백개 점포에 이르러 기정사실화 되는 한편 등유의 시장경기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HC와의 제휴는 등유를 효율적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공급자 논리와 편리성 제공이라는 소비자 니즈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져 왔으나 효율적으로 휘발유를 판매하기 위해 HC와 같은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HC의 등유판매업자로 北칸도우(關東) 일대에 점포를 늘리고 있는 조이풀 혼다(本田)는 등유판매를 계기로 주유소

를 오픈했다. 2002년 10월, 사이타마(埼玉)현 샤테(幸手)시의 대형 HC에 주유소를 병설하고 치바(千葉)현 인사이(印西)시에 2호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굽마(群馬)현 닛타(新田村)에 계량기 12기를 설치해 24대 동시주유를 할 수 있는 대형 셀프주유소를 오픈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바라기(茨城)현, 토치기현의 대형 HC에 주유소를 병설할 예정이다.

점포규모는 1,500~2,000㎡ 정도의 HC로는 중급이지만 약 400곳에서 등유판매를 하는 코메리는 주유소 병설을 위한 주차장공간과 투자액, 투자회수기간 등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주유소의 폐업이 계속되어 유희부지가 늘어남에 따라 저비용형의 윈스톱 주유소에 참가할 가능성은 있다. HC는 대형에서 소형까지 포함해 일본 전역에 약 2천여개가 있다. 오랜 경기침체로 개인소비가 늘지 않고 기업들의 시설 개보수도 계속되고 있다. 저가격상품의 제공 때문에 사업영역을 확대할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고 고객유치와 소비자 편리성 제공 때문에 주유소 참여를 검토하는 HC업자는 앞으로 증가할 듯하다.

(연료유지신문 2003. 1.6)



일본 정유업계의 올해 목표와 과제

— 석유연맹 회장, “2004년의 키워드는 「양보다 질로의 전환」” 이라고 밝혀

지난 1월 5일, 정제원매사의 단체인 석유연맹(한국의 석유협회에 해당)이 정례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판

매업자 단체인 전석련도 1월 16일에 예정되어 있다.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호전되고 지난해에 비해 경기선행지표가 호전되는 가운데 신년을 맞고 있다.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 석유업계에도 그 혜택이 미칠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유업계의 앞길이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석유연맹의 신년 하례회에서 석유연맹 회장(渡文明 新日本석유 회장)은 올해의 중점과제로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석유의 정위치 확보」, 「온난화대책에 도입저지」와 함께 「석유업계의 강력한 경영기반 구축」이 세 가지를 들고 강력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연맹 회장이 강조하는 '발상의 전환'은 「적은 자녀수 및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 환경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수요와 시장의 질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 다시말하면 이익·수익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보다 질로의 전환」이 일본 정유업계의 2004년의 키워드로 되고 경기회복과 함께 석유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 앞에 닥친 「수요감소」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석유업계에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원래 석유업계는 물량지향성이 강한 업종이다. 이는 「장치산업」의 숙명이기도 하고 보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 상대적으로 비용을 낮추게 돼 그 결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석유업계는 행정당국의 과도한 규제하에 처하여 정제능력, 생산량과 주유소 갯수까지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말하자면 「양」을 규정하는 규제에 따라 석유산업 경영의 관심은 어떻게든 배분된 「양」을 소화하여 다음 할당폭을 늘리

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이는 물량지향주의에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량생산은 대량판매로 연결되고 과당경쟁의 심화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물량지향성은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때는 수요증가가 원충작용을 하는 쿠션역할을 하여 왔으나 거꾸로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수요감소 시대」가 코앞에 닥쳐오는 이때에 석유연맹 회장은 몸담고 있는 신니폰세유키(新日本石油)의 시무식에서 「예전의 대량생산·대량판매의 성공체험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최근 「2007년 문제」라는 말이 각 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2007년은 후생노동성의 전망에 따라 일본의 인구가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2007년은 이른바 「단괴(團塊)세대」라는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일본은 향후 수 년간 큰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며 이는 석유업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감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석유수요는 휘발유까지 포함해 「감소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발상의 전환은 불가피

지난 1년간 연료유의 국내수요는 1996년 이후 7년 만에 전년실적을 상회하였다. 하지만 이는 1~3월의 등유판매 증가와 원자력발전소 고장은폐의 영향으로 전력용 B-C유의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인 일시적 요인이며 마냥 기뻐할 내용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유일하게 항상 수요가 증가해온 휘발유는 지난 여름의 낮은 기온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상반기는 전년실적을 밀돌았다. 2003년 4월부터 11월 누계로 보아도 전년 동기대비 0.2%라는 아주 미세한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저연비차의 보급에 따라 휘발유 수요는 인구가 정점이 될 2007년에 앞서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내수요가 감소로 전환되면 공급과잉이 보다 표출

될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도 「정제설비」와 「주유소」의 “두가지 과잉”이 지적되어 왔고 석유연맹 회장은 “두가지 과잉”을 「극복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로 정했다. 배수의 진을 치고 과잉문제에 대한 본격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003년도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시즌의 등유는 “풍요속의 빈곤”처럼 수요증가 속에서도 손실을 보았으나 그 교훈때문일지 현 시즌에는 비교적 신중한 가격대응이 보여지고 있다. 원매사의 실적도 비용삭감효과에 따라 수익을 회복하고 있고 일본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들어선다면 다시 수익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석유연맹 회장이 강조한 「양보다 질」로의 발상의 전환, 「과잉 극복」은 정말로 필수적이다.

원매사는 예전부터 ‘가격인상요인 자체흡수’라는 결산 정책을 부득이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과잉」을 포함하여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원매사 CEO는 이구동성으로 원유비용의 변동을 매끄럽게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제품가격형성의 필요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것을 국내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대답은 이미 확실하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석유업계의 체질이기도 한 물량지향주의와 정말 결별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4. 1.10)

2004년도 「검토사항」

「온난화대책에 관한 세제(稅制)는 다른 경제적 수단과 함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大綱)의 평가, 수정도 고려하면서 국민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등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다.」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양당이 지난 12월 17일에 결정한 「2004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환경성도 입을 계획하고 있는 「온난화대책세」는 「검토사항」으로 되었다.

「온난화대책세」는 환경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환경심의회총회정책·지구환경합동부회의 지구온난화대책세제전문위원회’가 지난 8월에 「온난화대책세제의 구체적인 제도의 안」을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12월의 제3회 기후변동범위제정 조약체결국회의(COP3)에서 이산화탄소(CO₂)등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일본은 1990년 대비 6% 삭감할 것이라는 교토의정서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3월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大綱)」을 결정했다. 대강(大綱)은 지금까지의 대책·시책의 진보 상황과 CO₂ 등의 배출상황 등을 평가하면서 6%삭감의 약속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시책을 강구한다는 「step by step」을 취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초로 평가·재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재검토 결과 추가시책으로 세제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면 직접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보고서에서는 탄소 1톤당 3,400엔의 온난화대책세를 과세하고 이 세수와 균형을 이룬 약 9,500억 엔의 보조금을 온난화대책에 투입한다면 교토의정서상 6%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온난화대책세는 휘발유·등유에서 리터당 2엔정도에 상응한다.

日, 「온난화 대책세」 도입구상

산업계 전체가 반대

보고서 제시 이후 「온난화대책세」를 둘러싼 논의가 산업계에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성은 2005년도에 도입한다는 방침이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전초전(자원에너지청)」의 단계이다. 그렇지만 산업계 전체에서 온난화대책세 도입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도로재원을 중심으로 석유관련 제세금을 증가세 당한다는 의식이 강한 석유업계는 「온난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려는 논의는 주객이 전도되었다(신일본석유 사장)」라며 11월 19일, 환경성의 공식발표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전석련도 석유판매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같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일본경단련 회장은 11월 18일, 환경장관과 만나 온난화대책세 도입에 따른 경기에 대한 주요영향을 고려한 결과 산업공동화를 촉진한다며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경제동우회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석유업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 기타 산업계도 잇따라 반론을 제기하는 등 온난화대책세를 둘러싼 산업계 전반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억제효과는 적어

석유연맹의 계산상 탄소 1톤당 3,400엔의 온난화대책세가 도입되면 석유업계에서는 연간 5,620억엔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더구나 정유공장에서도 자가소비연료에 358억엔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그 만큼 정제비용이 높아진다. 2006년에는 관세의 개정, 또한 주변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한층 의문시 되는 상황하에서 신규과세는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을 미칠 듯 하다.

교토의정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일본의 큰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中環審보고서에서 기록된

것 처럼 「온난화대책에 요하는 비용을 사회전체로서 가능한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안이하고 새로운 과세는 적극적으로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선은 기존의 온난화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석유와 LPG, LNG에 과세되고 있는 「석유세」는 금년도부터 석탄에도 과세되어 「석유석탄세」로 개정되고, 10월부터 CO₂ 배출량에 따라 새로운 세율로 이행되고 있다. 이 세수는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CO₂ 대책강화에 충당하고, 2004년도에 신에너지와 에너지절약 천연가스 이용촉진 등으로 함께 2,386억엔이 예산화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정부의 온난화대책 예산총액은 9,213억엔으로 이미 1조엔 가까운 금액이다. 석유업계는 「이미 온난화대책의 재원은 석유석탄세로 확보가 끝났다」라고 하여 1조엔 가까운 온난화대책세에 따른 새로운 재원은 필요없다고 하는 견해를 보였다. 휘발유에서 리터당 2엔이라는 세액이 CO₂ 배출억제효과를 낳는 소비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조세저항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거액의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도로와 석유공급 안정화대책 등 여러 용도를 지닌 연간 약 5조6,500억엔에 달하는 현행의 석유세제는 각각의 사용용도가 필요한 자금수요라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증세가 되풀이 되어, 현행 세체계가 완성되었다. 거두기 쉬운 방향으로 과세하려는 정부의 속 뜻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온난화대책세를 둘러싼 논의가 2004년도에 정식으로 시작되지만 다시 온난화대책세만의 증세를 둘러싼 논의로 될지 아니면 기존 세금과의 조정까지 이루어지는 논의로 될지 석유업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3.12.20) 